

어제 타계한 錦湖家 안주인 이순정 여사의 삶

지극한 내조·몸에 밴 봉사... 여성운동에도 기여



12일 타계한 이순정 여사가 고 박인천 회장과 함께 한 생전 모습.

12일 101세를 일기로 타계한 ‘금호가(家)의 안주인’ 이순정 여사는 효와 화목을 바탕으로 조용히 내조하면서도 봉사활동과 선행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이 광주고속(현 금호고속)을 키워나갈 당시 회사 직원들의 식사를 직접 챙기며 내조를 다했던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박 회장은 자식들에게 “오늘날 회사가 이만큼이라도 커진 것은 너희 어머니 공이 반이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 안된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이 여사는 재벌가의 안주인답지 않게 평생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했다.

1962년부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 활동 등을 통해 적십자 봉사회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했고, 1962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부인회 광주전남지부 이사장을

맡아 불우시설을 돌보고 소년소녀가장 결연 등에 앞장섰다.

또 1987년부터 선행화장학회와 어머니 장학회를 설립, 해마다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1997년 ‘장애인 장학회’를 설립하고 지체장애인 교육시설인 광주은혜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장애인에게 사랑을 쏟았다.

1983년 한국부인회관 건립을 주도하고 1998년 광주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여성단체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같은 고인의 헌신적 삶과 투철한 봉사정신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1991년에 대한적십자사 봉사장 은장, 1997년 무등여성대상, 2002년 대한적십자사 박애장 금장 등을 받았다. 2006년 11월에는 충효예실천운동 광주시연합회로부터 ‘빛고을인류대상’을 받는 등 ‘광주 여성의 어머니’로 불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고인은 남편에게는 양처로, 자식들에게는 현모로, 이웃과 사회에는 봉사자이자 희생의 삶을 살아온 우리 시대의 부덕(婦德)과 모성애(母性愛)·사랑의 표상이었다”며 고인을 기렸다.

이 여사는 또 5남3녀의 자녀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기업인과 학자로 키웠다.

그러나 평생 가족의 화목을 중시했던 고인은 지난해 셋째(삼구), 넷째(찬구) 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끝내 자식들의 화해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이 여사의 별세가 그를 계열사의 워크아웃으로 ‘좌초 위기’에 직면한 금호아시아나 오너 형제를 극적인 화해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밥퍼 나눔 행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정성운)과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는 최근 홍일고 옆 밥퍼 나눔 목포지부에서 ‘봄맞이 나눔의 사랑행사’를 가졌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류재천·김수관·강춘자·박기인·유희열

광주시민대상 영예

광주시는 12일 광주 시민대상심사위원회를 열어 ‘2010 광주시민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사회봉사대상에는 류재천(54) 해병대전우회 광주시연합회장이 선정됐으며, 학술대상에는 김수관(45)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가, 예술대상에는 강춘자(여·66)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장이 선정됐다.

체육대상에는 박기인(76) 호남대 이사장이, 지역경제진흥대상에는 유희열(75) ㈜세화아이템씨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사회봉사부문 류재천씨는 30여년간 야간 방범순찰과 청소년 선도, 시내 혼잡지역 교통정리, 환경감시단 및 무등골 지킴이 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정신을 실천한 공이 인정됐다.

학술부문의 김수관씨는 치아를 이용한 경조직결손부 수복 및 이식재를 개발해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등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고, 예술부문 강춘자씨는 사진작가로 30여년간 활동하면서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사진작품집 발간과 사진공모전을 통해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체육부문의 박기인씨는 호남대 설립자 겸 이사장으로, 호남대에 축구부, 양궁부, 권투부 등 각종 운동부를 창단한 것은 물론 광주시육상경기연맹회장을 맡아 시의 육상부흥에 헌신한 공이 인정됐다.

지역경제진흥부문의 유희열씨는 타이어 급행에 대한 투자와 기술연구개발, 수출증대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제45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계획이다.

광주시민대상은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상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1987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102명을 시상한 바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류재천 연합회장 김수관 교수



강춘자 지회장 박기인 이사장



유희열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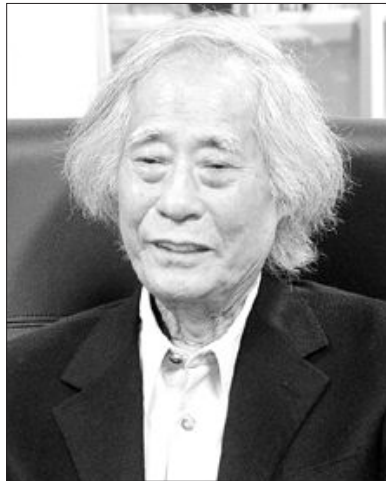
“저에게 예술은 인생 그 자체 요즘도 새벽에 3~4시간 붓질”

화업 50년 기념 조선대서 전시회 재미화가 김보현 화백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잘 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폭에 욕심을 많이 담고 화려한 것만 봤는데, 나이를 먹으니 일상에서 소소한 아름다움을 찾게 되더군요.”

지난 1946년 조선대 미술학과를 창립하고, 조선대의 첫 전임교수였던 93세의 현역 재미화가 김보현(미국명 Po Kim) 화백이 13일 광주를 찾았다.

김 화백은 오는 26일까지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김보현-자연의 속삭임’을 주제로 화업 인생 5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



조선대에 작품 340점 기증

시에서 그는 50년대부터 최근까지 창작한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70~80대 원로 작가들이 과거에 창작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여는 경우는 많지만, 90대 작가가 근작을 선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체계적인 한계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길이란 16m가 넘는 대작을 즐겨 그렸는데, 요즘은 다리가 아파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딱 팔이 닿을 수 있는 크기의 그림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4시간씩 붓질을 하고 있다. 그에게 예술은 인생 그 자체이다.

경남 창원이 고향인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 동경에 유학, 명치대학 법과와 태평양 미술학교를 동시에 다녔다. 조선대 개교와 함께 설립된 미술학과에서 초대학과장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선대 미술의 기틀을 다졌다. 조선대 1호 교수이기도 한 그는 강의실이 부족할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업을 하는 등 조선대가 지방 최고의 사립대학으로서 틀을 갖추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1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뮤지컬 ‘화려한 휴가’ 연출자와 배우들이 헌화·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려한 휴가’ 배우·제작진 5·18민주묘지 찾다

5·18 30주년 기념 뮤지컬 ‘화려한 휴가’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이 12일 광주 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주인공 민우역의 최승렬씨와 신애역의 손현정·전미도씨 등 30여명은 이날 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빌며 헌화했다.

최승렬(32)씨는 “대본을 처음 읽던 날 모든 배우들이 울었고 두달 간 연습하면서 눈물을 참는 연습을 했었다”며 ““우리는 폭도가 아니야”라고 외치는 마지막 대사가 있는데, 여기 와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대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애 역의 전미도(여·29)씨는 “621기의 621개 사연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며 “강인한 여인 신애 역을 맡았는데, 작품을 하루 루 하면 안된다는 다짐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8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동명의 영화가 원작인 ‘화려한 휴가’는 1년 6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됐으며 5월 항쟁 기간 중 피어난 주인공 민우와 신애의 사랑을 중심으로 5월을 이야기 하는 작품이다.

‘화려한 휴가’는 14일 프레스리허설을 거쳐 15~19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첫 공연을 가지며 6월 13~14일에는 서울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15일 오후 2시 공연장 로비에서 고은 시인의 ‘만인보’ 완간 기념 사진화도 열린다. 문의 062-655-35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방

▲정종보(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장)씨 ▲이정운(호남지역본부 팀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최석현(그린요양병원 원장·최석현성형외과 원장)·채경남씨 차남 성록군 김재관·정정애씨 차녀 시진양=16일(일)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이석구·박애영씨 장남 원우군 한기민(전남지방검찰청 정무과장)·김소와씨 장녀 은미양=16일(일) 오후 1시 서울 조선호텔 1층(그랜드볼룸)

▲최광우(광주시 세정담당관실 과표심사 계장)·김정숙씨 차남 현규군 나성호·이경순씨 장녀 수례양=16일(일)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 3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동신고 제17회(회장 정재근) 스

승의 날 기념 행사는 15일(토) 오후 6시 삼부지구 고다미. 010-4604-2958.

종친회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유적지 답사=16일(일) 오전 8시30분 모자보건센터 앞 출발. 010-3051-2415.

알림

▲신앙특강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이제민(에드워드) 신부(마산교구 반송성당 주임신부)) 개최=18일(월) 오후 5~6시30분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 세미나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 주최 조선대학교 가톨릭 교수회, 이제민 신부는 “말은 시들지 않는다” 외 28권의 저서를 집필.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모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무돌아트컴퍼니 사원모집=문화예술전문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마케팅부 부장·사원 모집 17일까지. 062-234-2730.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

272-2207.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불림장 건물 1층. 062-651-1175~6.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불림장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서, 현장답사 직장인 스테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

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검정 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부음

▲김우섭씨 별세 지영·소영·희영·은정씨 부친상=발인 1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백순애씨 별세 하운금·동해·윤자(영산포여중 교사)·금안씨 모친상 허장복(순천 성동초교 교사)·박병식(금호중기 대표)·곽창복(보성 예당초교 교사)씨 빙모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마흔까지 편안함-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김복실님(여: 85세)
주/부: 박중송/허정임
형/호/김정미
형/호/김정순
형/호/최신애
남/재: 박혁경/김광용
처/자/김인환

호	소	소	소
발	인	일	일
장	지	소	소

넋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

가임문의 **1688-3740**

학대종합상조 전문업체 노수원